

마음 열기

찬송가 151장을 함께 부르시다.

‘고난주간 참여 3가지’ 중에 무엇을 참여했는지 나누어 주세요.

말씀 나누기 마가복음 11장 4-10절, “하나님이 예비하심”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써 선지자와 제사장,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직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첫째, 나귀를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실 때, 하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귀를 예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이나 세상의 목적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예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걸어가기 위해 힘쓰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예비해 두시고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걸어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돕는 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제사는 자신의 생명을 온 인류의 대속물로 드리기 위한 십자가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돕는 자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가장 귀한 재산인 나귀를 조건 없이 내어준 '나귀 주인',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심부름에 묵묵히 순종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도움으로써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때, 우리도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환경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써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겔옷을 길에 깔며 왕으로 모셨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승리를 예비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도 삶 속에서 여러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때에 승리의 왕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우리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맺음말.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의 뜻은 “원하건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만드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이길 힘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1.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3.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했나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2.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3.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이블로 묶어보기 - [4월 : 잠, 욥, 녹, 행, 딤후, 유]

이번 달에 함께 읽을 여섯 권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하늘의 지혜가 땅의 삶으로 역사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물질과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오바다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지만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형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의 고난을 비웃었던 에돔의 교만을 심판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회복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로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초대 교회의 역동적인 발걸음을 기록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후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고난 중에도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은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유다서는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촉구합니다. 끝까지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책들의 연결 포인트는 “**삶에서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잠언**과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지혜이며 공의임을 보여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를 증언하며, **디모데전후서**와 **유다서**는 그 소중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며 끝까지 지켜내야 함을 당부합니다.

이번 바이블로를 통해 신승교회가 복음 앞에서 누구보다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FAMILY 나눔

2026년 3월 29일 종려주일

하나님이 예비하심

마가복음 11장 4-10절

